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의 관계

The Relationship Between Father's Participation in Child
Rearing and Mother's Child Rearing Stress

김 정(Jung Kim)¹⁾
이지현(Jeehyun Lee)²⁾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father's participation in child rearing and mother's child rearing stress. Mothers of 450 4-, 5- and 6-year-old children in six different kindergartens and daycare centers in Seoul and Kyungki-do area completed the Father's Participation in Child Rearing(Kyung Soon Choi, 1993) scale and the Parenting Daily Hassles(Crnic & Greenberg, 1990) scale. Data were analyzed statistically by SPSS. Results show that higher father's participation in child rearing results in lower child rearing stress for mothers. Especially, father's participation in areas of parenting and housework is important factor influence mother's decrease child rearing stress.

Key Words :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father's participation in child rearing),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mother's child rearing stress).

I. 서 론

산업혁명 이후 현대 사회는 과거 대가족 가부장 중심에서 핵가족 형태의 가족 중심으로 변화하게 되었고, 여성의 교육기회의 증가로 인해 기혼 여성의 취업증가도 이루어졌다. 이런 가족 구

조의 변화와 취업 여성의 증가는 가족 역할의 변화를 야기하였다.

전통적인 가족의 역할에서는 남녀의 구별을 뚜렷히 하여 아버지는 가족에 대해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는 도구적 역할(instrumental role), 어머니는 자녀 양육과 가사 활동을 담당하는 표현적

¹⁾ 건국대학교 석사

²⁾ 건국대학교 교직과 부교수

Corresponding Author : Jeehyun Lee, Department of Teacher Training Program, Konkuk University, 1 Hwayang-dong, Gwangjin-Gu, Seoul 143-701, Korea
E-mail : jhlc@konkuk.ac.kr

역할(expressive role)을 주로 담당하였다. 그러나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핵가족화, 기혼여성의 취업증가로 인한 가족구조의 변화는 아버지의 역할에 관한 인식을 바꾸게 되었다. 즉, 자녀 양육과 가사 영역이 더 이상 여성 고유의 과제가 아니며 부부가 함께 해야 하는 과제로서 인식이 전환된 것이다.

아버지에 대한 연구는 1970년대 중반 아버지를 아동 발달에 잊혀진 공헌자라고 칭하며 그동안 간과해 온 자녀 양육에 있어 아버지의 역할을 재조명한 Lamb의 연구에 의해 고무되었으며, 그 이후 많은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졌다(Binger, 1977; Fein, 1978; Lamb, 1975, 1981).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이후 아버지 역할이나 참여와 유아 발달에 관한 많은 연구(김희주, 1997; 이인수, 1992; 최경순, 1992)가 이루어졌다.

국내의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이제까지 생각과는 달리 아버지는 도구적 역할(instrumental role)뿐만 아니라 표현적 역할(expressive role)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의욕이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으며 이와 같은 양성적인 아버지(androgynous father)역할의 특징은 성역할 고정화의 영향으로부터 자녀를 자유롭게 해준다. 또한 아버지는 매일 아동 양육에 참여하고, 자녀와 더 많이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은화·이경우·이기숙, 1991).

아버지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아버지의 양육 참여와 자녀발달에 대한 연구이나, 최근 몇몇 연구들은 아버지의 양육 참여는 아버지 자신과 배우자인 어머니에게 긍정적인 의미가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양미경, 1996; 이정순, 2003; 정현희, 2003; Barton, J., Hirsch, R. B., Alexis, E. L., & Maureen, M, 1994; Crnic, K. A., Greenberg, M. T., Rogozin, A. S., Robinson, N. M., & Basham, R. B., 1983; Simmons, R. L., & Beaman, J.,

Conge, R. D. & Chao, W., 1993).

아버지의 양육 참여에 관한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아버지의 양육 참여는 자녀 발달 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아버지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아버지의 양육 참여는 어떠한 형태로든 가정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급격한 사회 변화 과정을 겪으면서 가족의 기능은 과거보다 많이 축소되었으나 질적인 자녀 양육 및 자녀의 사회화의 기능은 오히려 그 어느때 보다 강화되어(가족스트레스 연구회, 1995), 부모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핵가족의 증가로 대가족에서의 가족지지 체계는 축소된 반면에 가족의 자녀 양육 기능은 오히려 강화됨으로써, 다른 가족원의 도움없이 부부 둘만의 힘으로 자녀 양육을 수행하게 되어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감이 가중되었다. 또한 자녀가 있는 어머니들의 취업증가로 인해, 어머니들은 가정생활을 유지하면서 자녀 양육, 직업인, 며느리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됨으로써, 어머니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어머니의 스트레스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주로, 주요 생활 사건(major life event)에 초점을 맞추어왔다. 그러나 Lazarus와 Folkman(1986)은 주요 생활 사건보다는 일상적인 사건으로 인해 누적된 스트레스가 개인의 심리적 건강과 복지감을 더 잘 예측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스트레스 사건 자체보다 그 사건이 개인에게 얼마나 중요성을 갖는지에 대한 인지적 평가에 따라 개인마다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지적함으로써, 인간의 행동을 예측하는데 있어 인지적 측면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있어서도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 생활을 하며 느끼는 일상 생활에서의 지속적인 스트레스의 누적이 중요한 관심

사로 연구되었다. 특히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낮을 때 자녀에 대해 긍정적 양육 행동이 나타난다는 최근의 연구(Belsky, 1981; Crinic 등, 1983; Goldberg, 1990; Olweus, 1980)결과들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관심을 부각시켰고,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변인들에 관심을 가지게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Abidin(1992)이 양육 스트레스 모델에서 부모 및 아동의 특성 이외에 부모 건강, 배우자와의 관계, 사회적 지지 등의 변인이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이 있음을 밝히면서 이에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관련된 변인들을 연구한 결과들에 의하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에 하나로 배우자인 아버지를 들고 있으며(류우영 등, 1998; 전영자, 1996; Barton 등, 1994; Crinic 등, 1983), Simon과 그의 동료들(1993)에 의한 연구에서는 배우자의 지지가 사회적 관계망의 지지보다 더 어머니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국내의 어머니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는 양육 스트레스를 가족 스트레스의 하위요인으로 다루거나(전경아, 1991), 정상아와 장애아 어머니의 스트레스 수준 비교(윤수영, 1992; 이귀원, 1996) 또는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과 관련된 연구(정지연, 2002)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아버지의 양육 참여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또한 아버지의 자녀 양육 참여도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사회적 지지 체계나 어머니 역할 만족도 등의 연구에서 설문지 문항의 일부로 구성된 연구(류우영 등, 1998; 박해미, 1994; 신숙재, 1997; 전영자, 1992)

가 있을 뿐이며 이러한 연구들은 아버지의 직접적 참여보다 어머니에 대한 정서적 지지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의 아버지의 참여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또한 아버지의 양육 참여,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변인들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가족 모두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가족 배경변인(유아의 성별과 연령, 아버지의 연령과 교육수준,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라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는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가족 배경변인(유아의 성별과 연령, 어머니의 연령과 교육수준,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만 4, 5, 6세 유아와 그 부모를 대상

〈표 1〉 연구대상 가족의 일반적 배경 변인

대상	구분	구분	명(%)	대상	구분	구분	명(%)
유아	연령	만 4세	158(35.1)	어머니	연령	25-30세 미만	25(5.6)
		만 5세	145(32.2)			30-35세 미만	224(49.8)
		만 6세	147(32.7)			35-40세 미만	183(40.7)
		40세 이상	18(4)				
	성별	남자	218(48.4)	교육 수준	고졸	157(34.9)	
		여자	232(51.6)		전문대졸	77(17.1)	
아버지	연령	30-35세 미만	104(23.1)	취업 유무	대학교졸 이상	216(48)	
		35-40세 미만	282(62.7)		취업	162(36)	
		40세 이상	64(14.2)		비취업	288(64)	
	교육 수준	고졸	103(22.9)	가족 소득	100만원 미만	7(1.6)	
		전문대졸	61(13.6)		100-200만원 미만	57(12.7)	
		대학교졸	244(54.2)		200-300만원 미만	182(40.4)	
대학원졸 이상	42(9.3)	300-400만원 미만	102(22.7)				
			400만원 이상		102(22.7)		

으로 한다. 연구대상 가족의 일반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유아의 연령은 만 4세가 158명(35.1%), 만 5세가 145명(32.2%), 만 6세가 147명(32.7%)이고, 성별은 남자 218명(48.4%), 여자 232명(51.6%)이었다.

아버지의 연령은 30-35세 미만 104명(23.1%), 35-40세 미만 282명(62.7%), 40세 이상이 64명(14.2%)이고, 교육수준은 고졸 103명(22.9%), 전문대졸 61명(13.6%), 대학교졸 244명(54.2%), 대학원졸 이상이 42명(9.3%)이었다.

어머니의 연령은 25-30세 미만 25명(5.6%), 30-35세 미만 224명(49.8%), 35-40세 미만 183명(40.7%), 40세 이상이 18명(4%)이고, 교육수준은 고졸 157명(34.9%), 전문대졸 77명(17.1%), 대학교졸 이상이 216명(48%)이며, 취업모는 162명(36%), 비취업모는 288명(64%)이었다.

가족의 총소득은 100만원 미만이 7명(1.6%), 100-200만원 미만이 57명(12.7%), 200-300만원 미만이 182명(40.4%), 300-400만원 미만이 102명(22.7%), 400만원 이상이 102(22.7%)이었다.

본 연구대상은 대학교졸 이상이 아버지는 286

명(68.5%), 어머니는 216명(48%)으로 교육 수준이 비교적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가구의 총소득은 300만원 이상이 204명(45.5%)으로 우리나라 가구당 월 평균소득이 2,906,945원(통계청, 2004)으로 조사된 것을 기준으로 볼 때, 본 연구 대상의 사회경제적 수준은 중류층 가정이라 볼 수 있다.

2. 측정도구

1)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 측정도구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를 측정하기 위해 Bigner(1977), Brauch와 Barnett(1981), Lamb(1975)의 연구와 자유 기술형 질문지를 토대로 아버지 참여도 검사도구를 제작한 최경순(1992)의 도구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도구는 여가활동, 생활지도, 가사활동, 학습지도의 4개 하위요인의 30문항이었으나,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에 적절하도록 5문항을 제외시켰다. 제외된 문항은 유아에게 적합하지 않은 컴퓨터 오락게임을 연상케 하는 여가활동의 1문항과 숙제

지도나 학교에 가지고 갈 문건을 챙기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학습지도의 4문항이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의 3가지 하위 영역은 다음과 같다. 여가활동은 12문항으로 자녀와 함께 나들이·외식·동식물원·유원지·놀이터·영화관 등에서 함께 즐기는 활동이다. 생활지도는 9문항으로 유아가 사회 생활을 해나가는데 필요한 기본예절지도·언행지도·일상생활습관형성 등을 위해 도움을 주는 일을 뜻한다. 가사활동은 4문항으로 식사준비·설거지·침구정돈·집안청소 등에 참여하는 활동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5점 척도로 점수의 범위는 25점-12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 참여도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각 하위 요인별 문항간 내적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Cronbach's α 는 여가활동 α 는 .88, 생활지도 α 는 .85, 가사활동 α 는 .84였다.

2)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Crnic과 Greenberg(1990)의 'Parenting Daily Hassles (PDH)'의 문항을 번안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PDH는 유아와 어머니 사이에 매일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의 빈도와 그 사건으로 인하여 지각되는 스트레스의 강도를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내용은 유아의 행동으로 인한 사건들과 부모로서 해야 할 일들로 구성되어 있다.

PDH는 총 20문항으로 개발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예비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실정과 맞지 않은 2문항을 제외하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외동이 많아 형제 관계에 대한 문항이 적절치 않았으며 부부의 대화에 자녀가 끼어드는 상황에 대한 인식이 서양과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음이 드러났으므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국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의 발생 빈도보다는

강도가 심리적 상태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Crnic & Greenberg, 1990), 국내의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지각한 발생 빈도와 발생 강도를 모두 측정한 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발생 빈도와 강도 모두를 측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PDH는 어머니가 지각한 양육 스트레스 사건의 발생 빈도와 강도 모두 5점 척도이다. 점수 범위는 18점-90점까지이며 문항간 내적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Cronbach's α 는 빈도는 .91이었고, 강도는 .94였다.

3. 연구절차

1) 예비조사

측정 도구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자가 작성한 질문지를 유아교육을 전공하는 석·박사 과정 3명과 전공 교수에게 내용 타당도를 검증받았다. 또한 연구대상 연령의 자녀를 둔 어머니 5명과 개별 면접을 하여 설문지를 수정하였다. 초기 연구자가 작성한 설문지를 어머니들과 개별 면담한 것에는 연구자의 의견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만 4, 5, 6세의 어머니 35명을 대상으로 2차 예비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때는 본 조사와 똑같이 어머니들에게 질문지를 배부한 후에 설문지의 내용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체크해 줄 것을 요구한 후, 최종적으로 질문지를 수정·보완하였다.

2) 본조사

연구 대상의 표집은 총 6개 유아교육기관에서 만 4, 5, 6세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유아를 통해 600부를 배부하였다. 배부 후 작성된 질문지는 유아를 통해 기관에서 회수하였다. 본조사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설문지는 개별적으

로 볼펜이 동봉한 서류봉투에 넣어 회수 시 밀봉하도록 하여 익명성을 보장했다. 또한 가정통신문에 협조글을 넣어 가정통신문과 같은 날 배부되도록 하였다. 600부 중에서 회수된 질문지는 492부(82%)였다. 회수된 질문지 가운데 잘못 표기, 불성실한 응답이 있는 경우와 연령에 부합되지 않는 42부를 제외한 후 최종적으로 450부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수집된 모든 자료는 SPSS로 통계 처리하였다. 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했고, 아버지의 어머니, 유아의 일반적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사용

하였다.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가족 배경 변인들과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F검증을 사용하였다. 또한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및 해석

1. 가족 배경변인에 따른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 양육 참여도의 차이

가족 배경변인들에 따른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 양육 참여도의 차이에 대한 결과는 <표

<표 2> 가족배경변인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

가족 배경변인	아버지 양육참여도		N	M	SD	F	사후검증
유아성별	전 체	남아	218	75.72	18.86	8.35*	
		여아	232	80.53	16.42		
	여가활동	남아	218	38.05	9.91	.95	
		여아	232	38.94	9.45		
유아연령	생활지도	남아	218	27.49	7.20	21.52***	
		여아	232	30.41	6.13		
	가사활동	남아	218	10.18	4.31	5.86**	
		여아	232	11.19	4.46		
유아연령	전 체	만 4세 (a)	158	77.08	18.29	1.82	
		만 5세 (b)	145	77.10	17.32		
		만 6세 (c)	147	80.49	17.61		
	여가활동	만 4세 (a)	158	36.77	10.49	4.94*	a<c
		만 5세 (b)	145	38.66	9.36		
		만 6세 (c)	147	40.22	8.77		
	생활지도	만 4세 (a)	158	29.20	6.64	1.26	
		만 5세 (b)	145	28.28	6.42		
		만 6세 (c)	147	29.48	7.36		
	가사활동	만 4세 (a)	158	11.10	4.83	1.73	
		만 5세 (b)	145	10.17	3.90		
		만 6세 (c)	147	10.79	4.39		

<표 2> 계속

가족 배경변인	아버지 양육참여도		N	M	SD	F	사후검증
아버지연령	전 체	30-35세 미만	104	80.07	19.73	1.03	
		35-40세 미만	282	77.30	17.40		
		40세 이상	64	79.14	16.06		
	여가활동	30-35세 미만	104	39.53	10.28	2.11	
		35-40세 미만	282	37.79	9.54		
		40세 이상	64	39.98	9.05		
	생활지도	30-35세 미만	104	29.85	7.51	1.18	
		35-40세 미만	282	28.65	6.71		
		40세 이상	64	29.13	6.06		
	가사활동	30-35세 미만	104	10.69	4.11	.91	
		35-40세 미만	282	10.85	4.57		
		40세 이상	64	10.03	4.16		
아버지 교육수준	전 체	고 졸	103	76.75	19.55	1.05	
		전문대졸	61	80.95	17.17		
		대학교졸	244	77.70	17.40		
		대학원졸 이상	42	80.67	16.26		
	여가활동	고 졸	103	37.48	9.80	2.41	
		전문대졸	61	40.28	9.42		
		대학교졸	244	38.02	9.64		
		대학원졸 이상	42	41.24	9.41		
	생활지도	고 졸	103	28.63	7.46	.47	
		전문대졸	61	29.72	5.48		
		대학교졸	244	28.86	6.86		
		대학원졸 이상	42	29.60	6.82		
가사활동	고 졸	103	10.64	4.68	.66		
	전문대졸	61	10.95	4.46			
	대학교졸	244	10.81	4.28			
	대학원졸 이상	42	9.83	4.47			
어머니 취업유무	전 체	취업모	162	82.02	18.88	12.35***	
		비취업모	288	76.02	16.79		
	여가활동	취업모	162	40.57	9.49	11.76***	
		비취업모	288	37.34	9.60		
	생활지도	취업모	162	29.80	7.23	3.56	
		비취업모	288	28.54	6.55		
	가사활동	취업모	162	11.71	4.66	13.64***	
		비취업모	288	10.13	4.17		

* $p < .05$ ** $p < .01$ *** $p < .001$.

2>와 같다.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는 유아

의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났다($F=8.35, p < .05$). 남아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

의 평균은 75.72($SD=18.86$)였고, 여아의 아버지는 80.53($SD=16.42$)였다. 즉, 여아의 아버지가 남아의 아버지보다 많은 양육 참여를 하였다.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를 하위영역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때 생활지도와 가사활동에서 자녀의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21.52, p<.001, F=5.86, p<.01$). 생활지도는 자녀가 남아일 때보다 여아일 때 (27.49 vs. 30.41), 가사활동도 자녀가 남아일 때보다 여아일 때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높았다(10.18 vs. 11.19).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는 자녀의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를 하위영역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때 여가활동 영역에서 자녀의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4.94, p<.05$). 사후 검증 결과 자녀가 만 4세와 만 6세일 때 아버지가 양육 참여도는 의미있게 높았다. 즉, 만 4세보다 만 6세 자녀와 아버지가 여가활동을 많이 하였다.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 아버지 양육 참여도의 하위영역은 아버지의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아버지 양육 참여도의 하위영역과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는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12.35, p<.001$). 아버지 양육 참여도가 취업모일 때는 평균이 82.08($SD=18.88$)이었고, 비취업모 일 때는 76.02($SD=16.79$)였다. 즉, 취업모의 아버지가 비취업모의 아버지보다 많은 양육 참여를 하였다.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를 하

위영역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때 여가활동과 가사활동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11.76, p<.001, F=13.64, p<.001$). 양육 참여도를 하위영역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때 여가활동은 비취업모의 아버지보다 취업모의 아버지가 더 높았고(37.34 vs. 40.57), 가사활동도 비취업모의 아버지보다 취업모의 아버지가 높았다(11.71 vs. 10.13).

2. 가족 배경변인에 따른 어머니 양육 스트레스의 차이

가족 배경변인에 따른 어머니 양육 스트레스의 차이에 대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양육 스트레스 빈도는 유아의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6.25, p<.05$). 양육 스트레스 빈도에서 남아일 때 평균은 52.98($SD=16.02$), 여아일 때 평균은 49.56($SD=12.93$)이었다. 즉, 남아의 어머니가 양육 스트레스 사건의 빈도를 더 많이 지각하고 있었다. 양육 스트레스 사건의 지각 강도는 유아의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양육 스트레스 사건의 발생 빈도와 강도 모두 유아의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6.29, p<.01, F=6.32, p<.01$). 양육 스트레스 발생 빈도는 만 4세 평균이 54.11($SD=15.82$), 만 5세 평균이 51.05($SD=48.28$), 만 6세 평균이 48.28($SD=12.98$)이었다. 사후 검증 결과 만 4세와 만 6세(54.11 vs. 48.28)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양육 스트레스 강도의 평균은 만 4세가 53.98($SD=17.64$), 만 5세가 48.69($SD=15.58$), 만 6세가 47.82($SD=15.46$)였다. 사후 검증 결과 만 4세와 만 5세(53.98 vs. 48.69), 만 5세와 만 6세(48.69 vs. 47.82) 사이에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지각한

〈표 3〉 가족배경변인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가족 배경변인	양육 스트레스	구 분	N	M	SD	F	사후검증	
유아성별	빈도	남 아	218	52.98	16.02	6.25*		
		여 아	232	49.56	12.93			
	강도	남 아	218	51.68	17.54	3.00		
		여 아	232	48.94	15.36			
유아연령	빈도	만 4세 (a)	158	54.11	15.82	6.29**	a>c	
		만 5세 (b)	145	51.05	14.24			
		만 6세 (c)	147	48.28	12.98			
	강도	만 4세 (a)	158	53.98	17.64	6.32*	a>b a>c	
		만 5세 (b)	145	48.69	15.58			
		만 6세 (c)	147	47.82	15.46			
	어머니 연령	빈도	25-30세 미만	25	45.04	13.54	3.70	
			30-35세 미만	224	49.96	14.67		
35-40세 미만			183	53.19	13.78			
40세 이상			18	55.33	19.30			
강도		25-30세 미만	25	43.00	16.03	3.06		
		30-35세 미만	224	49.19	16.66			
		35-40세 미만	183	52.21	15.71			
		40세 이상	18	50.25	19.71			
어머니 교육수준	빈도	고 졸(a)	157	49.76	13.21	9.48**	a<c b<c	
		전문대졸(b)	77	46.31	15.41			
		대학교졸 이상(c)	216	54.03	14.71			
	강도	고 졸(a)	157	48.30	15.42	15.17**	a<c b<c	
		전문대졸(b)	77	43.19	16.18			
		대학교졸 이상(c)	216	54.18	16.33			
어머니 취업유무	빈도	취 업 모	162	51.54	15.77	.13		
		비취업모	288	51.03	13.91			
	강도	취 업 모	162	49.91	17.78	.11		
		비취업모	288	50.44	15.74			

* $p<.05$ ** $p<.01$ *** $p<.001$

양육 스트레스의 사건 발생 빈도와 강도 모두에서 연령이 어릴수록 어머니는 더 많은 양육 스트레스를 지각하고 있었다.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사건의 발생 빈도와 강도 모두 어머니의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발생 빈도와 강도는 모두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F=9.48, p<.01, F=15.17, p<.01$). 발생 빈도는 고졸 평균 49.76($SD=13.21$), 전문대졸 평균 46.31($SD=15.41$), 대학교졸 이상의 평균 54.03($SD=14.71$)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 고졸과 대학교졸 이상(49.76 vs. 54.09), 전문대졸과 대학교졸 이상(46.31 vs. 54.09)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고졸보다는 대학교졸 이상, 전문대졸보다 대학교졸 이상의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의 발생 빈도가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높았다. 양육 스트레스의 강도는 고졸 평균 48.30($SD=15.42$), 전문대졸 평균 43.19($SD=16.18$), 대학교졸 이상 평균이 54.18($SD=16.33$)으로 나타났다. 즉, 고졸보다 대학교졸 이상, 전문대졸보다 대학교졸 이상의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의 강도가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높았다.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다.

3.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의 관계에 영향력을 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 중에서 단계적 회귀분석을 하였다.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회귀분석의 기초가 되는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4>로,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의 하위 영역과 양육 스트레스의 발생 빈도와 강도는, 모두 통계적으로 부적 상관관이 있었다.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에서 빈도는 -.55, 강도는 -.58의 부적 상관관이 있었다.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의 각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가활동과 빈도 -.44, 강도 -.48의

<표 4>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의 관계

	전체	여가활동	생활지도	가사활동
빈도	-.55**	-.44**	-.51**	-.45**
강도	-.58**	-.48**	-.53**	-.47**

** $p<.01$

부적 상관관이 있었고, 생활지도 빈도는 -.51, 강도는 -.53의 부적 상관관이 있었다. 가사활동에서는 빈도 -.45, 강도는 -.47의 부적 상관관이 있었다. 즉,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지각한 양육 스트레스의 발생 빈도와 강도는 낮았다고 볼 수 있다.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에 대해 5% 수준에서 유의한 양육 스트레스 변인들을 단계적으로 투입하여 생활지도, 가사활동, 여가활동이 순차적으로 투입된 모형을 산출하였다. 이를 양육 스트레스 사건의 발생 빈도와 강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양육 스트레스 사건의 발생 빈도는 생활지도, 가사활동, 여가활동이 모두 투입될 경우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32.1%의 설명력을 가지며, 그 중 생활지도는 25.5%로 가장 많은 설명력을 가진다. 또한 여기에 가사활동이 첨가됨으로써 설명력이 5.9% 증가하여 31.4%의 설명력을 가지게 되며, 여가활동을 첨가할 경우에는 0.7%가 증가하여 전체 32.1%의 설명력을 가지게 된다.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강도에서는 생활지도, 가사활동, 여가활동이 모두 투입될 경우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35.6%의 설명력을 가지며, 그 중 생활지도는 27.7%로 가장 많은 설명력을 가진다. 또한 여기에 가사활동이 첨가됨으로써 설명력이 6.8% 증가하여 34.5%의 설명력을 가지게 되며, 여가활동을 첨가할 경우에는 1.2%가 증가하여 전체 35.6%의 설명력을 가지게 된다.

어머니가 지각한 양육 스트레스 사건의 발생 빈도와 강도 모두 상대적으로 중요한 양육 참여도 요인은 생활지도, 가사활동, 여가활동 순으로

〈표 5〉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중다회귀결과

모형	B	β	t	R ²	R ² 변화량	F	
(상수)	82.54						
빈도	생활지도	-1.08	-0.51	-12.38***	.26	.26	153.16***
(상수)	84.47						
빈도	생활지도 및	-.81	-.38	-8.62***			102.32***
	가사활동	-.91	-.27	-6.21***	.31	.06	
(상수)	86.15						
빈도	생활지도 및	-.67	-.31	-5.75***			70.22***
	가사활동 및	-.83	-.25	-5.54***			
	여가활동	-.17	-.12	-2.21*	.32	.01	
(상수)	87.11						
강도	생활지도	-1.27	-.53	-13.08***	.28	.28	171.30***
(상수)	89.44						
강도	생활지도 및	-.95	-.39	-9.10***			117.47***
	가사활동	-1.10	-.29	-6.81***	.35	.07	
(상수)	91.95						
강도	생활지도 및	-.73	-.30	-5.73***			82.27***
	가사활동 및	-.98	-.26	-5.96***			
	여가활동	-.26	-.15	-2.85*	.36	.01	

* $p < .05$ *** $p < .001$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어머니가 지각한 배우자인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가족배경변인에 따라 배우자인 아버지의 양육 참여,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조사하고자 하였다.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는 자녀가 여아일 때 높았고, 생활지도 영역과 가사활동 영역에서 더 많은 양육 참여를 하였다. 선행연구들은 남아일 때 양육 참여를 더 많이 한다는 연

구(이인수, 1998; Lamb, 1981; Weinraub와 Frankel, 1977), 사회문화적 영향으로 자녀의 성별은 관계가 없다는 연구(김희주, 1997, 정현희·최경순, 1995; Binger, 1977, Palkovitz, 1984), 본 연구와 동일한 결과인 여아일 때 양육 참여가 높다는 연구(이인숙, 1992; 최경순, 1991)로 연구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최경순(1991)의 주장대로 도구에 따라 그 하위 영역의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지각하는 정도도 성별에 영향을 받아 연구마다 상이한 결과가 생긴 것이라 추정해 볼 수 있다. 또한 많은 선행 연구들이 아버지 양육 참여도와 유아의 제 발달 영역과의 관계를 알아본 것이기 때문에, 연구대상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지역적 영향이나 상황적 영향을 강하게 받았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도시지역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중류층인 가정의 어머니 450명을 최종분석에 사용하여 기존 선행연구들의 제한적인 연구표집의 양적 문제를 어느 정도 보완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다른 선행연구에 비해 도시 지역의 중류층 가정을 보다 잘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즉, 현재 우리나라에서 도시 지역 중류층 가정의 아버지는 자녀가 딸인 경우 자녀의 양육에 보다 많이 참여하며, 특히 생활지도와 가사활동에 보다 많은 참여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자녀와 함께 등산, 영화관 등에서 함께 즐기는 여가활동 영역에 있어서는 아들과 딸의 차이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에 따라 유아의 연령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선행연구들은 연구결과에 있어 다른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Lamb(1986), Pleck(1983)는 아버지의 연령이 낮을수록 자녀의 양육에 많은 참여를 한다고 보고하였고, 이인수(1998)와 정경숙(2000)은 아버지의 양육 참여는 유아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양육 참여도 전체의 점수와 유아의 연령은 차이가 없었지만 하위 영역인 여가활동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만 4세의 자녀를 둔 아버지보다 만 6세의 자녀를 둔 아버지가 자녀와 여가활동을 많이 하였다. 이는 자녀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아버지는 자녀와 의사소통이 쉬워지고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이 많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에 따른 아버지의 연령과 교육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아버지의 연령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연령이 낮을수록 긍정적 상호작용 시간이 많고, 양육 참여가 높다고 보고한 연구(이인수, 1998; 최경순, 1991; Binger, 1977), 아버지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없다고 보고한 연구

(Volling & Belsky, 1991)로 서로 다른 결과들을 보이고 있다. 반면 아버지의 교육수준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 양육에 많은 참여를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Binger, 1977; DeFrain, 1979; Harris & Morgan, 1991; Marsiglio, 1991). 본 연구에서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에 따른 아버지의 연령과 교육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것은 본 연구대상 아버지들의 일반적 배경에 따른 결과라 추정된다. 본 연구대상 아버지의 연령은 35-40세 미만이 전체 62.7%였으며, 교육수준은 대학교 졸업 이상이 전체 아버지의 63.5%였다. 연령대가 비슷하고 교육수준이 비교적 높은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에 따른 아버지의 연령과 교육수준이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는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어 취업모일 때 배우자인 남편의 양육 참여가 높았고 여가활동과 가사활동에 많은 참여를 하였다. 이는 어머니가 취업시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가 높아진다는 외국의 선행연구(Baruch & Barnett, 1986; Lamb, 1981; Volling & Belsky, 1991)들과 동일한 결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통적 가치관이 강하여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는 어머니의 취업여부와 관련이 없다고 보고한 국내 선행연구(정현희·최경순, 1995; 최경순, 1991)들과는 다른 결과이다.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는 김영주(1995)가 지적하였듯 변화하는 사회에 대한 가족의 적응방식중 하나로 사회적 가치관을 반영한다. 그러나 최근 십여년간 국내 선행연구들에서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는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연구한 것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는 최근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즉, 현재 우리나라

라의 취업모의 남편들은 비취업모의 남편들보다 많은 양육 참여를 한다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특히 비교적 경제적 여유가 있는 맞벌이 취업모 가정의 경우 여가활동에 있어서 아버지의 참여가 높았고, 직장생활과 가정일의 병행으로 가사활동에 대한 부담감이 높은 취업모를 위해 가사활동에 많은 참여를 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어머니 양육 스트레스의 발생 빈도는 자녀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어 남아일 때 양육 스트레스가 높았다. 즉, 남아가 양육 스트레스 상황을 자주 일으킨다는 것이다. 이는 양육 스트레스는 자녀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다고 한 연구(박해미, 1994; 정지연, 2002)나 양육 스트레스는 여아 일때 높다고 보고한 연구(이정희, 2000; 편은숙, 2004)와는 다른 결과이다. 그러나 자녀가 남아일 때 어머니들은 자녀의 신체적 활동량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높다고 보고한 연구(강희경, 1998; Crnic & Greenberg, 1990)와 같은 결과라 할 수 있다. 남아일 때 양육 스트레스의 빈도에 있어서만 통계적 차이가 있다는 본 결과는 어머니들은 양육 스트레스의 강도보다 자녀가 양육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상황을 자주 만들 경우 스트레스가 높아진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

유아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빈도와 강도가 모두 낮았다. 그러나 사후검증 결과 양육 스트레스의 빈도 보다 강도가 자녀의 연령별로 통계적으로 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아가 보다 많은 자조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낮아진다고 보고한 연구(김기현, 2000; 박희선, 1999)와 같은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사후검증 결과에서 빈도 보다 강도가 연령별 차이가 확인했던 것은 본 연구대상이 유아기 자녀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유아기 자녀들은 연령에 관계 없이 활동성이 강하여 양육 스트레스 발생 빈도는 연령별로 차이가 적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유아는 해를 거듭할수록 발달이 빠르고 이런 빠른 발달은 유아가 어머니와 더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게 하고, 보다 많은 자조활동을 할 수 있게 하여 양육 스트레스의 강도가 감소된 것으로 추정된다.

양육 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연령과 관계가 없다고 보고한 김기현(2000), 김리진(1999)의 연구와 같은 결과이다. 그러나 어머니의 연령이 낮을수록 스트레스가 높다고 보고한 연구(이영석·최외선, 1993; Filed 등, 1980; 편은숙, 2004)들과 어머니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보다 많은 양육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한 Apley(1974)와 Brown(1981)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다. 본 연구결과는 연구 대상 어머니의 연령이 30-40세 미만인 전체의 90.5%로, 25-30세 미만과 40세 이상 어머니가 적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연령이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가능성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어머니 양육 스트레스의 빈도와 강도는 모두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높았다. 이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증가한다는 김리진(1999), 편은숙(2004)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이다. 그러나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스트레스의 양이 적어진다는 박희선(1999)의 연구, 교육수준은 스트레스와 차이가 없다고 한 이영석과 최외석(1993)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다. 학력이 높아질수록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높아진 본 연구의 결과는 연구대상 어머니 중 전문대졸 이상이 전체 65.1%로 비교적 교육수준이 높았으나 취업모는 전체 연구대상에서 36%로

전업주부가 많았다는 것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교육수준이 높기 때문에 학교나 매체를 통해 보다 쉽게 그리고 많은 양육 지식을 습득한 어머니들이 가정에서 자녀 양육만을 전담하다보니 자신의 양육 지식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는 자책감에서 양육 스트레스가 높아진 것이라 추정된다.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고성혜(1994), Aneshengel과 Pearlin(1987)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이다. 그러나 취업주부가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보고한 Keith와 Schaefer(1980), Skinner(1980), 취업주부가 양육 행동에 있어 더 적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박해미(1994)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취업주부와 비취업주부의 양육 스트레스가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던 이유를 찾아보면 아버지의 양육 참여를 지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취업모의 경우 아버지들의 양육 참여가 높았다. 그러므로 이로 인하여 취업모들이 양육 스트레스를 적게 받았을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즉,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가 높을 경우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는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가 높을수록 양육 스트레스의 발생 빈도와 강도는 낮게 나타났다. 이는 배우자로부터의 사랑과 수용은 다른 대인관계에서 제공될 수 없는 질적으로 독특한 지원이며, 부부관계는 부모의 적절한 양육행동과 연관되는 가장 중요한 지원체계라고 한 Belsky(1981), Crnic과 그의 동료들(1983)의 연구와 같은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사회관계망의 일부로서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한 결과로서, 배우자와의 관계, 양육 참여나 지지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한 류우영 등(1998), 박해미(1994), 전영

자(1996), Barton과 그의 동료들(1994)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이다.

본 연구는 배우자인 아버지가 어떠한 실제적 참여를 한 것으로 어머니가 지각했을 때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어머니가 지각한 양육 스트레스 사건의 발생 빈도와 강도에서는 모두 상대적으로 중요한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 요인이 생활지도, 가사활동, 여가활동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대상이 유아기 자녀이기 때문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세살적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다. 이는 유아기의 습관이 평생을 간다는 의미로 유아기 생활지도의 중요성에 대한 의미이기도 하다. 즉, 유아기에 올바른 생활지도를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인해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이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고, 배우자인 아버지가 자녀의 생활지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줄때 양육 스트레스가 낮아졌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아버지의 가사활동 참여 또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줄여 줄 수 있는 요인이었다.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유아기 자녀의 특성인 신체적 활동성으로 인해 많은 피로감을 느끼게 된다. 피로감이 누적되었을 때 배우자인 아버지의 가사활동 참여는 어머니들의 신체적인 피로감을 줄여줄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어머니들의 양육 스트레스가 줄어들었다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아버지가 자녀 양육에 있어 여가활동에 참여했을 때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주는 영향력은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여가활동 영역 역시 어머니의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요인이었다. 어머니들은 혼자 유원지, 공원 등에 자녀를 데리고 나가는 여가활동을 할 때 활동성이 강한 유아기 자녀로 인해 많은 피로감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배우자인 아버지

가 자녀와 함께 여가활동을 즐길 때 어머니들은 신체적 피로감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로인해 양육 스트레스가 낮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요약하여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결과 아버지의 양육 참여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각각 가족 배경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낮아진 것을 알 수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사회경제적 수준이 중류이상인 가족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예비조사결과 외동이가 연구대상의 반 이상을 차지하였기 때문에 본조사 때는 외동이에 대한 항목을 제외시키고 연구를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를 국내의 전체가족으로 일반화시키기 어려운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둘째, 국내연구에서는 스트레스의 발생 빈도와 강도를 모두 조사한 연구를 찾아보기 어렵고, 강도만을 조사한 연구가 많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 발생 빈도와 강도가 같은 결과를 보인 것도 있었지만, 다른 결과를 보인 것도 있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빈도와 강도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무엇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요청된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 배우자인 아버지가 많은 양육 참여를 할수록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줄어들었다.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보다 긍정적인 자녀 양육 행동이 나타난다는 선행 연구들을 참고해 볼 때, 본 연구의 결과는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들과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머니들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개발되는 부모교육 프

로그램에 있어서는 아버지의 양육 참여에 있어서 생활지도, 가사활동이 특히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관련있음을 인지하여 프로그램 개발시에 대한 고려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가족스트레스연구회(1995). *엄마의 스트레스* 서울 : 창지사.
- 강희경(1998). 3세 이하 자녀를 둔 전문사무직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어머니 역할관과 지원체계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고성혜(1994). 어머니가 지각한 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8, 21-37.
- 김기현(2000). 맞벌이 부부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관련 변인 탐색.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리진(1999). 직장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생태학적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주(1995). 신문에 실린 아동 양육 관련 기사를 통해서 본 아버지 역할 내용분석; 1920년대에서 1970년대의 동아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3(5), 153-166.
- 김희주(1997). 아버지 자녀양육참여도 및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우영·최진아·이 숙(1998).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1), 51-61.
- 박해미(1994). 자녀양육행동과 관련된 부모의 스트레스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희선(1999). 주말부부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죄책감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숙재(1997).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수영(1992). 자폐아동 어머니의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귀원(1996). 통합여부에 따른 학령전 장애 아동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석·최외선(1993). 개인적 자원이 스트레스 인지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1(2), 97-109.
- 이은화·이경우·이기숙(1991). 한국 아버지의 역할 인식에 관한 연구; 연령 및 근무시간을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11(1), 105-138.
- 이인수(1998). 아버지 양육참여도와 유아의 사회·정서적 능력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인숙(1992). 부모의 성역할 유형, 부부간 권력 유형과 아버지의 아기 자녀 양육 참여도.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순(2003).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부부관계, 부모성장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4(3), 99-108.
- 이정희(2000). 어머니가 인지한 자녀 양육스트레스와 유아 부적응 행동과의 관계.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미경(1996). 아버지의 자녀 양육참여도와 부모역할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4), 87-101.
- 전경아(1991). 도시부부의 스트레스와 적응방법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경숙(2000).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와 유아의 사회적 정서적 능력과의 관계. 군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영자(1992). 전문직 취업주부의 역할갈등, 대처방안, 자아 존중감 및 심리적 디스트레스 간의 관계.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지연(2002). 유아의 문제행동에 관한 어머니의 지각, 어머니-유아간의 조화적합성과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의 관계.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현희(2003). 아버지 양육참여와 어머니 역할 만족도와의 관계. *생활과학논집*, 7, 11-19.
- 정현희·최경순(1995). 아버지의 양육 참여와 유아의 역할수용능력 및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101, 125-139.
- 최경순(1991).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참여행동, *부산여대 논문*, 247-270.
- _____(1992).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참여도와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통계청(2004). *가계조사*. 서울 : 통계청.
- 편은숙(2004). 영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어머니 역할 인식과 자녀양육 스트레스.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neshensel, C. S., & Pearlin, L. I.(1987). Structural contexts of sex differences in stress. In R. C. Barnett, L., Biener and G. K. Baruch(eds.) *Gender and stress*. New York : Free Press.
- Abidin, R. P.(1992).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behavior. *The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1, 401-412.
- Apley, J.(1974). The significance of life events. *Developmental Medical Child Neurology*, 16, 218-219.
- Barton, J., Hirsch, R. B., Alexis, E. L., & Maureen, M. (1994). The Social Networks of Adolescents and Their Mothers : Influences on Blacks and Whites in Single- and Two-Parent Families, *Social Networks and Social Support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305-322.
- Baruch, G. K., & Baruch, R. C.(1981). Competence-related behaviors preschool girls. *Genetic Psychology Monographs*, 103, 79-103.
- Baruch, G., & Barnett, R.(1986). Father's participation in family work and children's sex role attitudes. *Child Development*, 57, 1211-1223.
- Belsky, J.(1981). Early human experience : A family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17, 3-23.
- Bigner, J. J.(1977). Attitudes toward fathering and father-child activity, *Home Economics Research*, 6(2), 89-106.
- _____(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 Brown, G. W.(1981).Life events, psychiatric disorder and physical illness. *Psychosomatic Research*, 25 (5), 461-473.
- Cmic, K. A., & Greenberg, M. T.(1990). Minor parenting stresse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 1628-1647.
- Cmic, K. A., Greenberg, M. T., Rogozin, A. S., Robinson, N. M., & Basham, R. B.(1983). Effects of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mothers and premature and full-time infants. *Child Development*, 54, 209-217.
- DeFrain, J.(1979). Androgynous parents tell who they are what they need, *The Family Coordinator*, 237-243.
- DeFrain, J.(1979). Androgynous parents tell who they are what they need, *The Family Coordinator*, 28, 237-243.
- Fein, R. A.(1978). Rescarch on fathering : Social policy and an emergensperspective, *Social Issues*, 34(1), 122-135.
- Field, T. M., Widmayer, S. M., Stringer, S., & Ignatoff, E.(1980). Teenage, lower-class, black mothers and their preterm infants follow-up. *Child Development*, 51, 426-436.
- Goldberg, W. A.(1990). Marital quality, parental personality and spousal agressment about perceptions and expectations for children, *Merrill-Parlmer Quarterly*, 36, 531-556.
- Harris, K. M., & Morgan, S. P.(1991). Father sons, and daughters : differential involvement in parenting. *Marriage and the Family*, 53, 531-544.
- Keith, P. M., & Schaefer, R. P.(1980). Role strain and depression in two-jobs families. *Family Relations*, 29, 483-488.
- Lamb, M. E.(1975). Father : Forgotten contributors to child development. *Human Development*, 18(1), 245-266.
- _____.(1981).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 : 김광웅 · 박석연 옮김(1995). *아버지 역할과 아동발달*.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Lazarus, R. S., & Folkman, S.(1986). Stress Pocesses and Depressive symptomatology, *Abnormal Psychology*, 95, 102-113.
- Marsiglio, W.(1991). Parental engagement activities with minor children. *Marriage and the family*, 53, 973-986.
- Olweus(1980). Familial and temperamental determinants of aggressive behavior in adolescent boys : A causal analysis. *Developmental Psychology*, 16, 644-660.
- Palkovitz, R.(1984). Parental attitudes and fathers' interactions with their 5-mont-old infants. *Developmental Psychology*, 20(6), 1054-1060.
- Parke, R. D.(1981). *Fathers*, Cambridge : Harvard University Press.
- Pleck, J. H.(1983). Husband's paid work and family role : Current research issues. In H. Z. Lopata & J. H. Pleck(Eds.). *Research in the Interweave of Social Roles : Families and Jobs*. Greenwich, CT : JAI press.
- Simmons, R. L., Beaman, J., Conge, R. D., & Chao, W. (1993). Stress, support and antisocial behavior trait as determinants of emotional well-being and parenting practices among single mothers. *Marriage and the family*, 55, 385-398.
- Skinner, D. A.(1980). Dual-career families stress and coping : A Literature review. *Family Relations*, 29, 473-480.
- Volling, B. L., & Belsky, J.(1991). Multiple determinants of father involvement during infancy in deal-earner and single-earner families. *Marriage and the family*, 53, 461-474.
- Weinraub, M., & Frankel, J.(1977). Sex differences in parent-infant interaction during free play, departure, and separation. *Child Development*, 48, 1240-1249.

2005년 6월 30일 투고 : 2005년 8월 28일 채택